

2025 우주선 단기선교여행 돌아보기

이름 : 유안나

대부분 단기선교여행의 경험이 삶에 깊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평가해서 다시 삶에 적용하도록 하는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1. 단기선교 기간동안 가장 좋았던 것은?

- 선교사님의 필요를 채우고, 동력을 드린 것
- 팀원들을 서로 사랑하고 화합으로 예배한 것
- 치앙마이에 도착해서 첫 날 아침 기도한 시간 (인도해 주신 헤림언니께 감사드립니다)
- 주일 치앙마이 주안교회 송영관, 최문정 목사님 부부의 환대 (특히나, 송영관 목사님께서 저희가 코코넛칩을 선물로 사가고 싶다하니 물건이 파는지 둘러보러 정탐(?)도 대신해서 다녀오신 부분이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제 사랑의 언어가 봉사라서요 ^^;;)

2.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은?

- 중보기도의 힘 (일부러 선교지에 와서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지금 시작이라 하면 짧게나마 더 뜨겁게 기도해주실 것 같아서요. 덕분에 기도제목대로 선교팀 안의 불편한 마음의 씨앗이 자라나지 않게 되어 감사합니다.)
- 팀의 질서와 연합 (각자가 생각하는 "선교는 이래야 한다." 또는 "이 때는 이것이 맞다." 라는 원칙과 개인적 경험 등을 내려놓고 질서안의 거하시는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3.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또는 장소와 그 이유

- 우따라딿 라차팻 대학교에서 호떡 만들기를 하며 학생들과 도라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던 시간들
- 소그룹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더욱 친밀함을 느끼는 계기가 된 것 같음. (같이 릴스도 찍고 스몰토크 했던 시간을 바탕으로 한국에서도 그 친구들이 떠올라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4.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을 요약한다면...

- 선교사와 선교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협한 시각과 지경을 넓히심. 개인적으로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기존 선교는 마르다처럼 부지런히 무언가 일하고, 뻑뻑한 일정들로 채워진 선교였습니다. 그로인해 내가 무얼 했다는 소진된 느낌만 남았고, 팀이 연합하여 예배드리는데 집중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교는 비록 육신은 영혼을 갇아먹을 만큼 아팠지만, 그 곳에서 남아계실 선교사님의 기쁨을 드리는 시간들로 인해 그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예미희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이 기대됩니다.

5. 되돌아와서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 번아웃?과 우울증, 무기력이 온 것
- 태국에서 들려주신 개인적인 기도제목에 응답해주신 것 (선교지나 수련회에 개인적인 기도제목을 갖고 가기보다 그 때마다 부어주시는 생각들에 집중하는 편인데, 이번 선교에는 개인적인 기도제목을 들고 갔습니다. 아직 100퍼센트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밭을 만들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6.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은?

- 기도굴에 들어가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된 것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시간들을 소망하게 된 것)
- 목표는 3월 개학 전에 새벽기도 참석하기 또는 기도원가기입니다.

7. 잊지 못할 에피소드

- 2월 9일 토요일 치앙마이에 도착하여 수아와 함께 돌이 함께 땀도 흘리고, 이야기하며 속눈썹 여정을 떠났던 그 날, 바들바들 두려움에 떨며 네일아트 받았던 시간들
- 팀의 문화체험을 담당하였는데 다음 장소로 안내하여야 하는데 따로 이동하게 된 사실이 미안하였기 때문이었던 것 + 리더님의 따가운 시선이 신경쓰여서 그랬던 것이었을까...^^;

8. 지체 재발견! 우주선 안에서 이 지체의 새로운 모습을 보았다!

- 임혜선 선생님 가정의 사랑으로 연합된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 나중에 내가 자녀가 생긴다면 어떤 방향으로 양육하면 좋을까 하고 짧지만 생각을 해보았다.

9. 태국 치앙마이 우따라딧 선교 추천사 및 출고! 가기 전에 이것은 꼭 알아두자!

- 한국어교육과 학생들에게 줄 한국 과자 선물을 미리 한국에서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 선교중에 육체피로로 인해 힘들어하는 지체를 위해 소형 안마기를 준비해가자.

10. 힘들었던 부분, 부족했던 점, 보완했으면 하는 점. 다음 태국선교 준비할 때 이것만은 꼭 점검하자 라는 부분은??

- 일정이 빡빡하지 않았는데, 7일 내내 어깨에 돌이 들어간 것 같이 너무 아파서 힘들었다.
- 태국 하이쏘만 간다던 음식점들만 내리 가고, 너무 맛있고 훌륭한 음식을 대접받고 또 많이 남기다보니, 선교에서 너무 사치스럽게 누리는 것은 아닌지 하고 계속 마음이 불편했다.
- 일정에 한눈 팔려서 한국에서 나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놓치지 않고, 잘 기억해 1인분씩만 잘 감당할 수 있길...라고 생각해본다.

우주선팀 감사하고 사랑합니다.